

화재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취재/이 두홍 <홍보 2과장>

● 개요

지하철 2호선 성수역 부근의 군소 공장 밀집지역 간선도로변인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71-2 번지에 소재한 삼성섬유(주)는 5백50평의 대지에 연건평 1천2백여 평의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의 공장 건물로 1973년 4월에 설립된 화학섬유 제조 업체이다.

이 공장의 주요 기계설비로는 Random carding M/C, Forming M/C, Needle Loom, carding M/C, Drying M/C 등이 있고 P.E Fiber를 주 원료로 각종 Padding 및 Quilting을 월 3톤 정도 가공 생산하여 스키복, 방한복, 자켓류 등의 의류생산업체에 이를 공급하고 있다.

삼성섬유(주)는 P.E Fiber 가공 분야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전문업체로서 제품의 고급화에 주력하여 최근에는 봉재완구의 충전재인 포섬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주요 생산 공정을 보면, 원면→타면→수지spray→건조→누비→출고의 과정을 거치며 공정중 출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건조 공정에 직화가 아닌 열매체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으나 작업 공정상 섬유분진이 발생, 체류하며 원자재 및 제품이 가연성이

므로 유사시 연소확대의 위험은 배제 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 공장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에 불연성의 내장재를 쓰고 있으며 층별, 용도별 방화구획을 하여 연소확대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옥내 소화전 11개소, 자동화재탐지설비 12회로, 초기소화기 14개 보유 등 자체 소방력을 향상하여 화재발생 요인을 극소화 하고 있다.

● 화재발생 원인 및 경위

이러한 화재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실수로 인하여 2월 15일 오후 8시 15 분경 본공장동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기계설비 및 동산등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내고 말았다.

화재원인은 1층내 Drying M/C의 콘베어벨트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 종업원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불티가 화학섬 분진에 착화, 발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발생 즉시 종업원들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자체 진화 작업을 시도하였으나 격렬한 화염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진화작업에는 일단 실패하였다. 특히 전력이 차단되는 바람에 옥내소화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긴급 출동한 6대의 소방차에 의하여 오후 9시 30분경에야 완전 진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당초 더 큰 피해가 예상됐으나 피해를 1층 일부에 국한시킬 수 있었던 것은 내화구조 건물로서 방화구획이 적절하였고 소방대의 재치있는 연소방지 조치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서 방화구획의 중요성을 또 한번 인식



시켜 주는 좋은 예가 되었다. 게다가 평소 종업원들에게 작업 안전과 불조심에 대한 교육훈련이 소홀하였음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 관계자는 전한다.

● 피해상황

이 화재로 발화지점인 1층 공장내부의 알미늄 창호 일부와 전기 시설 대부분이 소실 및 파손되고 내·외부의 도장부분이 연기에 오손되는 건물 피해 외에도 고가의 주요 기계설비인 Needle Loom 이 반수 및 침수로 훼손되고, 출화장소 근처의 Dry M/C 각 부분이 소실변형 또는 반소 파손되어 기계 성능을 완전 상실하였고 열매체보일러의 외장 및 계기류가 열을 받아 소실 변형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때 인근에 쌓여 있던 P.E Fiber 일부와 Padding 등 제품이 소실 훼손되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피해 이외에 거래처와의 납기문제로 인한 클레임등 간접피해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재발생후 회사측에서는 이러한 간접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급히 하청업체를 선정, 납기일등의 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즉각적인 복구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 보험가입 현황 및 이재 보상

당시 삼성생명(주)은 86년 2월 13일자로 한국화재보험협회에 건물 4억6천6백3만6천원, 기계 8억7천90만원, 동산 4천2백만원의 보험금액으로 계약기간 1년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따라서 협회는 화재 발생 즉시 피해액을 산정, 1억5천1백87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피해복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삼성생명(주) 安 晟鉉 사장은 보험계약에 대하여 『만약에 의 무보험이 아닌 임의 보험이었다면 보험계약일이 지체되거나 아예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화재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특수건물로 화재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중소규모의 공장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자금 사정으로 매우 어려움이 뒤따르는 실정이나 의무보험이므로 부보하게 되어 재난에 대처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보험제도를 좋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번 화재만하더라도 보험계약체결 3일만에 당한 사고이고 보면 보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 복구 및 화재후 상황

화재발생후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재난극복에 발 벗고 나섰고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5월말경 원상복구하여 6월부터 정상 가동할 수 있었으며 기자가 방문하였을 때는 지난번 화재의 흔적은 찾을 수 없이 완벽하게 복구되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다.

화재발생후 안사장은 불조심에 대하여 직접 전직원에게 수시로 개별교육과 주의를 환기시켜 주며 현장내에서는 인화물질, 담배, 성냥 등의 소지를 절대 금지시키는 등 화재예방에 남다른 성의를 보이고 있다. 또한 건물 정면에 소화전을 1개소 증설하

고 소화기를 전량 ABC급 분말 소화기로 교체하는 등 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15개소에 순찰함을 설치, 2시간마다 1번씩 순찰토록 제도화하고 작업장내 분진 제거는 물론 용접등 보수작업시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토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사장은 이러한 투자와 노력에 그치지 않고 전직원에게 기초훈련, 부분훈련, 종합훈련 등의 소방훈련도 철저히 실시하여 화재 재발방지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 성현 사장은 화협에서 취급하는 보험업무에 대하여 『우리와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 의무보험으로 인하여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위험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보험가액결정, 계약절차등에서 보험서비스의 개선이 바람직하다』며 손해사정에서 기계설비의 보험가액이 현 시가보다 적어 고충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어 화협의 안전점검에 대하여는 『불안전 상태로의 방치를 개선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점검시의 지적사항은 1차적으로 소유주에게 통보한 후에 개선여부를 확인, 2차적으로 관서에 통보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고 그간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처럼 건물주 스스로가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적절한 보험가입과 적극적인 화재예방 조치를 취할때 자신은 물론 크게는 국가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 ☐